

약용작물 작황 양호, 거래부진속 약보합세 경향

중국산 두충 반입,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 유통

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뜨거웠던 6월에 이어,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든 7월. 저마다 무더위를 피해 산으로 바다로 빠져나간 자리의 한약시장은 한여름 폭염 못지 않게 숨이 막힌다. 일부 소매상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약상들이 한산하기만 한 한약골목을 지키며 소일거리 찾지 못해 무료함을 달래고 있는 상황.

거래 부진한 가운데 국산 한약재 시세는 약보합세 경향이 뚜렷하다.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햇것 출하가 마무리된 풀잎약재를 비롯 맥문동, 자실, 두충 등의 국산약재 출하량도 예년비 크게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길경, 건강 등의 약재는 물동량이 귀해 상보합세 보이고 있다.

건강 지난 2000년 생강 값 폭락 영향으로 지난해 재배면적이 급감함에 따라 올 건강 시세가 상반기 내내 상보합세 유지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건강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6월 시세보다 1천 원 폭으로 오른 8천원선이다. 올 햇것 수확량이 출하되기 전까지 건강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 유지할 전망이다.

구기자 약보합세. 수입 구기자 영향으로, 또 햇것 출하 물량을 의식한 탓인 듯 지난 6월초 근당(6백g기준) 5천7백원 선까지 폭락했던 구기자 시세가 7월말 현재는 근당 6천5백원(청양산), 8천원(진도산) 선으로 회복세. 햇것 출하가 조금씩 이어질 상황이나 구기자 시세가 워낙 바닥 세로 떨어지자 생산농가에서 구기자 수확작업을 미루고 있어 예년에 비해 햇것 출하 물량이 더딘 편이다.

길경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길경 도매시세는 근당(6백g기준) 2만5천원(통), 8천5백원(절) 선으로 지난 6월초 2만1천원(통), 7천5백원(절) 시세보다 1천~4

천원 폭으로 올랐다. 물동량 귀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산 길경 영향으로 중국산 길경 시세도 덩달아 오름세. 중국에서 생도라지로 수입해와 국내에서 건조 길경으로 시중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귀 하락세. 지난 5월 말 근당(6백g기준) 3천3백원(통), 4천3백원(절) 선이던 토당귀 시세가 7월말 현재는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6백g기준) 3천3백원(통), 4천원(절)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지난 6월만 해도 토당귀 절품이 근당 3천5백원 선까지 하락했다. 최근 들어 소폭 오른 것. 일당귀 시세는 근당 3천 원 선으로 보합세다. 올 당귀 재배면적이 예년비 다소 증가한데다 아직까지의 작황은 그런대로 좋은 편이라는 신지인의 전언으로 미루어 올 당귀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당귀 약보합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두충 다소 회복세 보이는 듯 싶던 두충시세가 경기부진으로 다시금 주춤 가라앉았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 3천원, 중품 2천5백원, 하품은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국내 한 상인이 중국 섬서 한중지역에서 국내산과 거의 동일

한 형태의 두충 약200톤 가량을 계약했다는 소문에 이어 최근에 대량을 수입해와 국내 시장에서 국산으로 둔갑 국산 시세에 유통하고 있다는 입 소문이다. 수입두충 시세는 근당(6백g기준) 2천원을 넘지 않으니 1천원 이상 이윤이 남는 셈이다.

백출 상승세. 물동량도 귀하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토백출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6천원(상품), 1만3천원(중품) 선으로 지난 6월초 1만2천5백원(상품), 1만원(중품) 선보다 3천원 폭이나 껑충 올랐다.

산약 물동량 귀한 상황. 지난해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급감한 때문이다.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식신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1만3천원 선으로 지난 6월초 시세보다 5백원 폭으로 소폭 오름세. 자연산인 생산약은 물량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더욱 네줄과에 속하는 산약은 숲이 우거지면서 생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춰감에 따라 채취량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호 근당(6백g기준) 1만2천원 선 시세에는 수지타산

중국약재 시장동향

인삼 수요 증가 추세

○...한국인삼의 생산수량이 적은 상황에서 일본은 매년 1천여 톤에 달하는 인삼을 중국에서 수입해가고 있으며 미국, 독일, 스웨덴 등도 중국의 인삼 시장을 개방한 상태이기에 인삼 수요는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 속에 시세도 꾸준한 오름세가 예상된다.

패모 폭등세 지속

○...지난 6월 초까지만 해도 kg당 13~15\$ 선이던 절강 패모가 7월말 현재 22\$(인민폐 165~180위안)

로 시세 폭등했다. 패모 값 폭등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이란 관측 속에 25\$ 선까지도 접어지고 있다.

오미자 시세 하락

○...서오미자 시세는 반값 시세인 1.6\$ 선으로 하락세. 서오미자는 육이 적어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비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제약사들에서는 엑스 추출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북오미자도 3.5\$로 시세 하락.

햇연교 9월 이후 출하

○...지난해 최고 2.5\$ 선까지 올랐던 연교는 올

이 안맞아 생산농가에서 생산을 기피하고 있는 품목. 생산량 감소로 국산 시호 물량도 많지 않지만 근당 5천원 선이 고작인 수입 시호 영향으로 국산 시호는 매기도 없는 상황.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국산 시호 근당 도매시세는 1만5천5백원 선. 지방에서는 1만5천원 선이다.

오가피 최근 신문 방송에서 연일 보도된 광고 방송 영향으로 오가피 소비량이 급증. 오가피는 거의 품절 상태다. 지난 6월초 까지만 해도 근당(6백g기준) 2만원선에 거래되곤 했던 오가피 시세가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근당 3만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막 오가피도 근당 4천5백원으로 3천5백원 선이던 지난 6월보다 오름세. 오갈목은 한단(약3백g)에 2천원 선이다.

황금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황금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지난 6월 시세인 근당 5천7백원 선보다 소폭 오른 6천원 선이다. 최근 농가에서는 식품용으로 반입된 수입약재로 골머리를 앓던 중 궁리 끝에 수입과의 차별화를 위해 기존의 절단 가공작업을 원방기를 이용 황기처럼 길게 절

단한 상품도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절단기를 이용한 상품에 비해 가루가 많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잘 찾지 않고 있는 상황. 시세도 근당 5천5백원 선으로 기존 절단기를 이용한 제품(근당 6천원) 시세보다는 낮게 형성돼 있다.

황기 매년 이맘때 초복에서 말복 사이인 삼복더위에 가장 소비량이 많은 황기가 올해는 경기부진으로 예년만큼 매기가 활발치 못한 형편이다. 시세도 그래서 보합세.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1년근 소황기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가 8천원, 3년근 중황기는 3만8천원 선, 5년근 대황기는 6만원 선으로 시세변동 없다. 수입 황기는 근당 1천2백원 선.

맥문동 햇것 출하가 마무리된 7월말 현재 맥문동 시세는 다소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 거심이 7천원, 막맥은 5천3백원선이며 밀양산 거심은 근당 8천5백원 선으로 청양산 보다 다소 높은 시세 형성하고 있다. 올 수확량은 평년작 수준으로 시세 보합세 전망.

산수유 7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산수유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9천원, 중품이 8천5백원 선으로 지난 6월초 시세인 9천5백원(상품)보다 소폭 내림세 경향. 경기불황으로 위축 매기가 없는 탓이다. 올 작황은 아직 양호한 편.

〈문정희〉

서 올해는 세신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물량이 남아 있게 된 때문이다.

전반적 내림세 경향

○...햇것 출하시기가 가워지면서 인진, 작약, 목단을 비롯 산수유, 황기 천마 등 중국 약재시세가 전반적 내림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황련 등 일부 약 시세는 오름세. 15\$ 선이던 황련이 7월말 현재 18\$ 선으로 상승. 한약 경기가 다소 살아나는 8월 말~9월 초순경에야 다소 시세 변동이 예상되며 그 전까지는 보합세 이를 전망이다.